

# 후백제 역사적 가치 재조명 · 사업 발굴 협력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민선8기 첫 실무회의 가져 7개 시·군 담당자 참석 공동사업 추진·운영 방안 등 논의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이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11일 (재)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주시·문경시·상주시·논산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등 전국 7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2022년도 공동사업 추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6.1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 실무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화에 따른 추후 협의회 일정을 정하고,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진행해야 할 중장기 사업 발굴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원에 대한 지역별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진행해야 할 중장기 사업 발굴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소속 지자체는 '역사정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전주시는 11일 (재)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전주시·문경시·상주시·논산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 등 전국 7개 시·군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2022년도 공동사업 추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을 비롯해 협의회 회원도시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시 및 중앙 정부, 정치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후백제는 후삼국시대 강력했던 위상을 가졌던 국가였으나, 그 간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왕조교

체기 정도로 인식됐다. 정부도 8대 역사문화권을 지정해 정비 및 역사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6차례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업무협약 및 특별전시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11

월 26일 전주시를 회장으로, 문경시를 부회장으로 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발족 이후 첫 행보로 지난 1월 18일 협의회 소속 지자체를 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각 협의회 소속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열띤 토론회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김성주 국회의원이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성공적인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각 회원도시의 의견을 모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후백제의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후백제의 왕도로서 전주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지역 간 통합을 실현하고 관광사업 개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

### 전주시,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7.3% 이상 응답

전주시가 추진해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홀로거주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3% 이상이 만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통합돌봄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541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과성 △서비스 제공내용(시간·횟수) △제공기관의 친절도 △사업의 재참여 의사 및 기타 건의사항 등 5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로 계속 선정되기를 희망하는지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541명) 중 538명(99.4%)가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며, 통합돌봄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전주형 통합돌

봄사업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입증했다.

설문에 응답한 삼천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낯설고 가정방문이 부담스러웠는데,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합돌봄 서포터즈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해줘서 고맙다"며 "외로웠는데 더 자주 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보호자 없이 병원가기 힘들었는데 병원 오가는 길을 함께 해줘서 좋았고, 바라는 점으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 내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 영양을 비롯한 일상생활 서비스를 강화하여 자립의 실제화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전주지역 약국 2개소 선정

전주지역 약국 2곳이 심야시간대 비상약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연다.

전주시약사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전주지역 약국 2개소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늦은 시간대에 방문해도 약사의 복약지도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약국은 완산구 삼천동의 '사랑약국'(완산구 백제대로 74, 063-229-1400)과 덕진구 금암동의 '열약국'(덕진구 매봉로 29-1, 063-278-7889)으로, 이들 두 곳은 올 연말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심야시간대인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된다.

/김윤상기자

# '김건 교수의 영화 이야기' 재능기부 특강

### 전주시립 금암도서관, 매주 토요일 4회 성황리 진행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이 시민들의 재능기부 특강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지식으로 연결해주는 장소가 되고 있다.

금암도서관은 지난 6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김건 교수의 영화 이야기' 특강이 9



금암도서관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김건 교수의 영화 이야기' 특강이 9일 마무리됐다.

일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금암도서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기도 한 김건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금암도서관에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면서 기획됐다.

김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문화 매체이자 산업으로서의 영화의 탄생 과정 및 유럽, 미국, 한국 등 영화의 역사, 특징 등을 다뤘으며, 매회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특강에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금암도서관은 김건 교수의 특강에 이어 자신의 지식을 지역 사회에 전달할 시민 지식인을 모집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4명의 추가 재능기부 희망자를 섭외했다.

후속 재능기부 특강은 오는 8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자세한 강의 정보와 신청 접수는 향후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김건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금암동 주민으로서 같은 지역 주민들과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뜻으로 이번 특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저소득층에 기저귀·분유 지원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둘째 이상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기르는 가구다.

둘째가 기저귀를 신청할 때 첫째아가 24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첫째아 기저귀까지 지원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두 수유가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8만6000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임신·출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우체국소공물, 나들가게, 이마트, G마켓, 옥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카드사별로 구분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기저귀와 분유 지원 혜택을 받기 위

해서는 영아 출생일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을 모두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만 월 단위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보건소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총 6703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